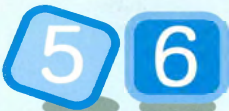




정기간행물 등록 15호 Vol.37

등록번호 : 경7000107 등록일자 : 2006년 8월 7일
발행일 : 2009. 6. 1 간행 : 제15호 발행처 : 박광영
편집인 : 박광영 발행처 : 우리네
발행소 : 경기도 이천시 호남시 송곡리 696
주소 : 경기도 이천시 호남시 송곡리 696
TEL. 031-634-0326-8 FAX. 031-634-7991



CONTENTS

우리꽃, 이제 세계의 하늘을 본다 1	1
현장 가이드	2 3
품종 갤러리	4 5
리더스 초이스	6
포토 스토리	7
품종 포커스	8 9



신소재 관목초개 10



우리꽃과 사람들 11



특집 | 그라스 Grass 12 | 13

특집 | 2009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14



월드리포트 15

우리꽃 따라잡기 16

특집

우리꽃, 이제 세계의 하늘을 본다 1



그동안 우리꽃이 경관적으로 추구하며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2회 연속 연재를 통해서 글을 쓴다 - 편집자주 - (사진, 중국 여주 화신기)



“우리꽃”은 2000년 4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즐기차게 변화하며 한국의 야생화 및 조경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성장해 왔다.

“우리꽃”의 성장은 비단 “우리꽃”의 회사만의 성장으로 보기 힘들다. 야생화 종자를 대량생산하여 국내 야생화 종자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10년 전 별개미취 1kg은 약 100만원을 호가 했다. 그 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 공사 혹은 기타 법면에 Seed Spray로 대량으로 살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기였다. “우리꽃”은 1999년 중국 길림성에 약 8만평의 농장을 건설했고 백두산지역의 산지에 직접 수확하여 종자로써 야생화의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여는데 한 몫을 했다. 당시는 산지에 의한 자생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주요 야생화 종자의 대량 생산과 보급은 본격적인 공경육묘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 자생지 훼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로도 작용했다.

그리고 “우리꽃”은 2001년 우리법면 시리즈라는 야생화 혼합종 시대를 열었다. 우리 환경에 알맞은 종자를 선정하고 이의 적절한 비율을 조정하여 출시된 “우리법면 1호, 2호, 3호, 4호” 시리즈는 출시 첫해 많은 조경회사 혹은 골프장 등에서 천대를 받았다. “혼합종요? 아휴! 다 사용해 봤어요. 1년만 지나면 잡초한테 안돼요. 그리고 2년만 지나면 없어지고 마는 혼합종 안써요. 안써!” 그러나 조금씩 사용해 본 고객들은 혼합종 “우리법면 시리즈”에 가히 열광이라 할 정도로 반응을 보여주었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꽃”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었고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파인벨리”의 법면은 생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해가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변화했다. 그곳의 붉은 물론이거니와, 여름의 보라색 법면 또한 환상의 코스를 연출하여 “우리법면 시리즈”의 효과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후 많은 회사에서 혼합종을 수입하거나 직접 재조, 판매하여 법면 시장은 이제 싸리와 양장디의 단일 혹은 몇 종의 단순 Seed Spray를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법면시리즈에 맞서는 혼합종은 출현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우리법면은 표준화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유사혼합종과의 구별을 위한 특별한 코드를 포함하여 차별화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출시한 도시용 혼합종 “메스 타빌” 시리즈는 많은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첫 해에만 점차 주문량을 늘려가고 있다.

처음부터 품종 경쟁력을 선언한 우리꽃의 “고급 야생화 품종”은 단연 국내 조경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계의 빈곤과 정보의 취약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식물소재 사용은 야생화 시장의 위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비교적 잘 적용하는 몇몇 종들이 폭발적으로 사용되어 전국을 똑같은 하나의 패턴으로 몰아갔다. 그 때 “우리꽃”의 좋은 품종과 좋은 정보는 다양한 경관 연출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꽃”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식재 능력은 설계도의 도면을 능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고급 야생화의 생산은 물론 전문 식재 회사로의 명성을 쌓아 왔는데 특히, 한국형 암석가든인 ARI 가든과 혼합, 혼성식재, 그리고 생태연못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의 유명골프장을 비롯하여 국회, 의정 공간, 많은 대학 총장공관과 캠퍼스, 국내 굴지의 많은 그룹사 저택은 물론 사옥과 아파트의 조경현장에서 그 평가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대형 꽃축제에 참여하여 새로운 패턴의 꽃 디자인을 연출했다. “우리꽃”이 참여한 전국의 꽃축제는 기존의 이벤트성과 차별되었다. 보는 것만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관 축제의 본래의 장으로 되돌려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름은 꽃 축제인데도 실상 현장은 구조물과 거의 비슷한 이벤트 요소가 강해 전국의 축제가 비슷해 가고있던 때 우리꽃의 제안은 “자연과 경관”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장점은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절감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7.8월호에 계속)

파주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

우리꽃이 지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 바로 그곳,
파주 심학산 돌꽃이축제!!!



지역축제의 서막이 오르다

이제는 심학산돌꽃이꽃축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빨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예는 드물다. 그 축제의 시작은 2006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꽃이 꽃축제를 준비하던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대폭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우리꽃'과 인연이 되었고 우리꽃에서는 효과적인 꽃축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전격적으로 수용되어 조금 늦었지만 2007년 2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꽃, 끈끈이대나물 등 화려한 종자들을 이용하여 서패리의 마을 농경지, 흙을 높이 쌓아놓은 꽃대궐을 지장하였고 서패리 마을에 혼합식재로 꽃길을 조성하고, 돌이 많은 이 마을에 물과 돌, 바람, 자연을 담아내는 ARI(암석)가든을 조성하였고 물을 살리는 계류를 자연보다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

2007년 5월 말 파주시는 돌꽃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심학산돌꽃이꽃축제를 열었다.

말 그대로 양귀비 등이 펼쳐보이는 경관은 시민들의 발을 멈추게 하였고 그 입소문은 다른 도시의 시민들을 방문을 재촉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관을 처음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주민이 참여한 축제마당을 펼쳐 5일간 40만명이 넘는 고객이 돌꽃이 마을을 다녀갔다. 자유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보면 출판단지가 보이고 출판단지 뒤면으로 심학산이 끼인 조그만 마을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서패리 돌꽃이 마을이 있다. 이 돌꽃이 마을이 꽃축제와 더불어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축제를 준비하기위해 파주시와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꽃축제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지역축제의 대명사로 발돋움하다

2008년 제 2회 돌꽃이 꽃마을축제에는 1회의 경험을 되살려 다양한 종자로 디자인을 더욱 새롭게 하였고 전체적으로 조정 및 관리 부분에 대한 조연을 하였다. 그리고 더욱더 꽃축제를 확장시키고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2009년 제 3회 돌꽃이 꽃마을축제에서도 파주시청 직원들과 심학산 서패리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 올해는 유난히 가뭄과 일교차가 심했고 윤달이 끼어서 발아도 늦고 개화도 늦어서 축제 기간에 꽃을 피우기 위해 파주시청 담당자는 물론이고 현장을 맡고 있는 우리꽃 또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축제는 예정보다 1주일 늦은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7일에서 1주일 더 연장을 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면 혼합파종이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다. 2007, 2008년에는 단일 파종(양귀비, 수레국화, 안개꽃, 끈끈이대나물, 금영화 등) 위주였다면 2009년에는 혼합파종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두세가지 품종을 섞어서 구역별로 나누어 파종하였다. 단일파종하고는 또다른 색다른 경관을 보여주었고 개화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축제가 시작하는 초입부분의 꽃대궐과 놀이동산은 대면적에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이 피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2007년에 사공되었던 서패리 돌꽃이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만 ARI가든은 아기자기하면서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디자인된 한국 암석 정원의 모습이다. 얼마전 파주 서패리 마을에서 본 ARI 가든을 보

고 우리꽃이 위치한 이천본장까지 발걸음을 한 여성 고객분 들을 맞이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ARI 가든같은 정원은 처음입니다. 락가든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물어 물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원을 만들면서 가장 큰 보람은 인위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 그대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고객들이 알아준다면 그 기쁨은 두배가 된다. 지금까지 계속 ARI가든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패리 돌꽃이 마을은 우리꽃이 식재하고 조연을 해준 혼합식재가 집 앞마다 조성이 되어서 이젠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마을사무실 벽면에 벽화수를 사공하여 수직정원의 새이름 벽화수를 직접 선보임으로써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니, 이게 진짜 식물이야?" 하면서 직접 벽화수를 만져보고 신기해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참고로 축제 입구 도로변에 놓인 도로형 화분 시티가든은 이번에 우리꽃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시티가든은 도로변에도 놓기만 하면 화단이 만들어지도록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다.

'우리꽃'은 파주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꽃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파주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축제를 본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꽃에 문의를 해온다.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 축제의 성공은 마을주민과 파주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심학산 돌꽃이 축제와 마을 주민의 축제, 그리고 파주시의 축제를 뛰어넘어 온 국민의 꽃축제가 되길 희망해본다.



톱풀 비단

Achillea millefolium 'Fanal' 국화과. ☀️ 🌧️



키가 50~70cm정도 자라며 화색은 짙은 적색을 띤다. 잎은 거취가 심한 톱니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꽃은 6월부터 개화하여 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데 화기를 길게 유지하며 개화 후 꽃이 질 때쯤 커팅을 해주면 연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다. 대단위 군식을 하거나 혼합식재시 적용하면 좋고 노랑색과 흰색의 톱풀 품종과 같이 심으면 화색이 대비되면서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무늬금계국

Coreopsis grandiflora 'Tequilla sunrise' 국화과. ☀️



잎의 가장자리 주변으로 부정형의 노란색 무늬가 있다. 꽃은 5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꽃 중앙에 적색의 심이 있다. 초장이 30~40cm정도 자라고 꽃이 없는 봄에는 잎의 아름다운 무늬, 여름에는 노란색 꽃이 관상 가치가 있어 혼합식재시 사용하거나 암석가든에도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로 삽목을 하여 증식한다.

황금배초향

Agastache rugosa 'Golden jubilee' 꿀풀과. ☀️

키가 70~80cm 정도 자라며 잎과 줄기 모두 황금색을 띤다. 8~9월 경에 꼬리형태의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잎에서는 고유의 향기가 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양분이 많아 웃자라면 쓰러질 염려가 있기에 시비를 적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키가 크며 수형이 좋아 단독식재, 포인트 식재로 좋고 AR가든에 바위 옆에 식재하면 잘 어울리고 향기가 좋아 허브원을 조성할 때 적용가능하다.



알키밀라

Alchemilla mollis 국화과. ☀️ 🌧️ 💧



꽃은 5~6월경 스프레이 형태로 노랗게 핀다. 초장은 20~30cm정도로 자라며 연두색 원형의 잎이 조밀하게 모여서 자란다. 포기의 모양이 좋아 화단에 단독으로 식재를 하거나 수변이나 화단의 암쪽에 열식하면 좋다. 꽃은 절화용으로도 활용가능하며 보통 허브가든에서는 '레이디스 맨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붉은애기뿔의비름

Sedum 'Sunset Cloud' 돌나물과. ☀️ ☁️



물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띄고 꽃도 6~7월에 붉은색으로 핀다. 반포복성으로 자라는데 약 20~30cm정도 자란다. 암석가든의 돌틈에 적용하면 좋고 옥상조경시 암석식물로 이용하면 매우 좋다. 다른 세덤류에 비해 습에도 강해 어느 정도 배수가 되는 장소라면 정마기에도 질크러짐이 거의 없다.

스타치스

Stachys monieri 'Hummelo' 꿀풀과. ☀️



6~7월경에 여러꽃대가 직립형으로 올라와 지주색 꽃을 피운다. 보통 30~40cm정도 자라고 밝은 녹색의 잎은 길쭉한 타원형으로 주름이 많이 있고 모여 자란다. 혼합식재시 중간 식물로 적용하거나 락가든에 여름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식물과 어울려 조화롭게 배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번식은 봄, 가을로 포기나누기를 하면 된다.

왜성아스타 춘추

Aster dumosus 'Little pink Beauty' 국화과. ☀️



키가 25~30cm정도 자라는 키 작은 아스타 품종. 분홍색 꽃이 6~7월경 여름에 1차 개화하고 9월경 가을에 다시 2차 개화한다. 꽃이 장기간화하여 화단, 도로변, 식물원 등에 혼합식재나 군식 등 어떤 형태에 적용해도 좋은 소재이다. 봄에 삽목, 봄, 가을로 분주하여 번식한다.

오렌지숙근코스모스

Coreopsis verticillata 'Zagreb' 국화과. ☀️ 🌧️

키는 30~40cm정도 직립성으로 자라고 화색은 진한 노랑색을 띤다. 6월부터 10월까지 연속개화하는 장기간화형으로 일반적으로 장마전 1회, 그리고 초가을이 시작되는 8월말쯤 다시한번 잘라주면 좋은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이때 너무 아래쪽을 자르면 다시 꽃이 피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주의한다. 혼합식재, 단독군식에 모두 적용가능하다.



니포피아

Kniphofia uvaria 'mix' 백합과. ☀️



6~7월경 꽃대가 직립성으로 올라와 촛불형태의 주황색 위주로 구성된 복색의 대형의 꽃을 피운다. 잎은 두껍고 난 형태로 갈라져 자란다. 60~80cm정도 자라고 포기가 크고 안정된 식물형태를 가지고 있어 독립수로도 좋으며 AR가든의 포인트 식물로도 좋다. 번식은 포기나누기가 가능하나 대량증식을 위해서는 실생이 유리하다.

리아트리스

Liatris spicata 국화과. ☀️



봄에는 난 형태의 윤기있는 잎을 형성하다가 꽃이 피는 여름이 다가오며 추대가 되어 7~8월에 방망이 형태의 보라색 꽃이 뒷부분부터 피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간다. 초장은 70~80cm정도 자라고 뿌리는 알뿌리 형태를 이루어 증식을 위해서는 분구를 해주면 된다. 군식하는 것도 좋고 다른 식물과 혼식하는 대표적 여름꽃이다. 절화로도 많이 사용된다.

황금잎좁쌀풀

Lysimachia punctata 'Alexander' 앵초과. ☀️ 🌧️ 🌧️



잎 전체적으로 부정형으로 허얀 줄무늬가 들어 있고 봄에 신토가 나올때는 붉은빛을 띄기도 한다. 꽃은 6~7월경 잎 마디에서 하나씩 노랑색 꽃이 줄지어 핀다. 약 60~70cm 정도 자라며 약간의 습기가 있는 땅을 선호하여 수변 식재용으로 적합하다. 수변의 포인트 식물로 식재해도 좋지만 물빠짐이 좋지 않아 일반적인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은 곳에 군식하거나 적엽 절화풀과 함께 구분 혼합하여 식재하면 더욱 아름다운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꼬리풀 리틀블루

Veronica 'Ulster Blue Dwarf' 현삼과. ☀️ 🌧️



초장이 20~30cm로 키작은 꼬리풀 품종. 꽃은 파랑색의 꽃이 촛불형으로 5월말부터 6월까지 1차개화하고 커팅 해주면 2차개화 한다. 꼬리풀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약간의 내음성이 있어 반양지에서 문제없이 자라며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나 잘 적응한다. 번식은 삽목, 분주로 가능하다.

상록갈사초

Carex bauchananii 사초과. ☀️

갈사초는 잎이 사계절 갈색을 띄는 그라스 품종. 키가 40~60cm까지 자라며 건조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한다. 생육은 매우 강건하여 관리상 까다로운 점은 없으나 다소 내한성이 약하므로 겨울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 곳에 적용하거나 토양을 짙으로 덮어주면 좋다.

옥상조경 혹은 락가든에 포인트 식물로 좋고 목재데크나 구조물과의 연출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화분에 심어 에버그린 등 색깔이 다른 그라스류와 대비하여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좋다.



골드밴드

Carex morrowii 'Gold Band' 사초과. 🌧️ 🌧️



초장은 25~30cm정도이고 잎의 초형이 난형태로 퍼져있는 형태를 이룬다. 잎은 두껍고녹색바탕에 바깥쪽으로 줄무늬가 들어 있으며 입면적으로 광택이 있다. 전체적인 초형이 단아하고 겨울에도 상록성인 잎을 가지고 있다. 연못의 바위주변이나 독립포기로 혹은 AR가든의 소재로 음지의 차별화된 연출에도 매우 뛰어난 식물이다. 열식 혹은 군식해도 좋고 특히 포인트식물로 좋다.

애기노랑금계국

Coreopsis 'Creme brulee' 국화과. ☀️



6~10월까지 장기간개화. 화색은 노랑색이고 키는 30~40cm 정도 자란다. 꽃은 직경이 약 3cm 정도로 기존 금계국 보다 작으나 화수가 많은 다화성의 식물. 1차 꽃이 만개 후 지고나면 위로부터 3~4파디 아래를 커팅해 주어야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도로변, 골프장, 식물원 등에 대면적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이용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삽목.

파랑의 아름다운 꽃방석 눈하늘꽃

꽃은 물론 가을의 단풍까지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소재는 그리 많지 않다. 아니 한가지라도 다른 소재와 비교해서 뛰어난 특징이 있다면 유용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꽃이 아름답고 장기간화되는 특성을 가지는 개량후복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류 등은 이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숙근지피식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호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질 그라스류는 대부분 잎과 종자의 형태, 염색, 식물전체의 품 등이 좋아 조경의 유용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눈하늘꽃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파랑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뿐만아니라 가을에는 잎이 붉게 단풍이 들어 관상가치를 더해주고 생육도 빠르게 자라 지피력 또한 뛰어난 특징이 있다.

7월부터 파랑색의 작은 꽃이 조밀하게 피어나 10월까지 이어지고 땅속줄기로 빠르고 넓게 포기를 형성하여 방석모양을 이루면서 자란다. 꽃이 지고 난뒤에도 늦가을이 되면서 잎이 서서히 단풍이 들면서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자아낸다.

양지의 건조지는 물론 암석가든에도 좋은 피복



식물로 도로의 양지, 중앙분리대 또는 넓은 면적의 토양 피복을 원하는 장소에 적용하면 좋다. 그리고 골프장 등의 법면에 봄의 꽃잔치를 연출하며 여름, 가을을 수 놓을 꽃으로 적용하면 매우 좋은 식물이다.

눈하늘꽃이라는 이름은 지난호에서도 밝혔듯이 인도플럼바고류 하늘꽃으로 번역한 자료가 있어 다르지만 땅에 누워 자라는 특성이 있어 눈하늘꽃으로 명명했음을 밝혀 둔다. 🌸

고목을 소재로 한 고산 분위기의 가든 연출

이번 포토스토리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골프텔 앞에 조성한 화단이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주목의 고목을 주재료로 한것으로 처음엔 돌을 이용하여 ARI가든 형식으로 조성용 목적으로 했으나 현장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며 캐내어 보관하던 고목을 활용하는 것이 주변의 분위기와 더 어울릴것으로 판단, 즉석에서 소재를 바꿔 디자인 한 것이다.

사진은 골프텔 로비앞 원형화단의 일부 사진으로 주재료의 교체로 기존의 ARI가든의 품종 배치와 다르게 화려함 보다는 강원도 정선의 고지대 분위기와 고목과 잘 어울릴수 있게 식물의 걸감을 잘 살려 고산 분위기를 연출했다.

먼저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②번의 배초향이다. 꽃이 화려하지 않지만 붉은색의 고급스런 느낌과 고목과 잘 어울린다. ①번의 식물은 혼합식재나 ARI가든에서 많이 적용이 되었고, 우리넷 신문에서도 단일종으로 많이 소개되었던 가우라라는 품종으로 장기개화형 품종이다. 전면에 배치 되었을때 시선을 집중시켜 주제인 고목이 덜 돋보일수 있으므로 뒤쪽으로 두포기만 배치를 하였다. 어두운 색의 기둥과 흰색의

바닥을 연결하는 식물이 무늬종이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초록색 잎만 보았다면 밋밋하고 끊어져 보일수 있는 것을 로니세라④의 황금색과 흰줄무늬대사초⑤, 삼색조팝⑥, 무늬엔젤리카⑦, 흰줄무늬사사⑧ 등의 무늬종을 배치함으로써 단순해지는 것을 보완, 연결해 주었다. 속새⑩의 경우 수변식물로만 인식되어 있지만 디스플레이시 적절하게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잘 배치하면



뒤어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애기세월⑪의 경우 이끼를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애반이나 이끼를 사용하는 대신 잎의 걸감이 좋은 세담을 사용하였다. 바닥의 마감을 8~10mm의 그린키피로 마감함으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주어 어두운 색의 고목과 대조를 이루어 주재료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키 작은 호피무늬 억새 억새 리틀제브라

군식 또는 생울타리용으로 좋습니다

'우리꽃'에서는 다양한 억새류를 우리넷을 통해서 소개했고 동시에 많은 제품을 출시하여 현장에 선보여

왔다. 무늬억새, 억새 모닝라이트, 억새 그린라이트, 호피무늬억새, 억새 파랑새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는 억새는 키가 작은 호피무

늬억새인 억새 '리틀제브라' 이다.

키는 120~150cm정도 자라고 잎이 가늘고 가로형의 띠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담한 형태의 억새이다. 일반 호피무늬억새의 경우 대가 곧추서면서 직선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리틀제브라'는 잎이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형태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아담한 식물품을 가지고 있어 쓰러지지 않고 잎의 호피무늬와 더불어 선이 아름답다.

명중해는 거의 없고 토양 또한 별로 가리지 않아 관리가 용이하다. 독립의 포인트식물로 삼기 보다는 군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라스원을 만들 때 몰리니아, 무늬새그라스 등과 같이 중간크기의 위치에 배치할 때 유용하고 생울타리용으로 적용해도 좋다.

번식은 봄, 가을로 포기를 분주해서 증식해 준다. 🌸



Plant List

- ①. 반양가우라 Gaura lindheimeri 'Red Butterflies'
- ②. 배초향 Agastache rugosa
- ③. 남천 Nandina domestica
- ④. 로니세라 '황금' Lonicera nitida 'Golden Bargin'
- ⑤. 흰줄무늬대사초 Carex oshimizu 'Variegata'
- ⑥. 삼색조팝 Spiraea japonica 'Gold Flame'
- ⑦. 무늬엔젤리카 Aegopodium podagraria 'Variegatum'
- ⑧. 흰줄무늬사사 Pteris blanda variegata
- ⑨. 스텔라원주리 Hemerocallis hybr. 'Stella D'Oro'
- ⑩. 속새 Equisetum hyemale
- ⑪. 애기세월 Sedum acre



후록스는 오래전부터 조경용소재로 즐겨 사용하던 품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록스'라는 이름은 익숙하게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후록스라고 하면 도로변에 피던 빨간색 꽃으로 인식되어져 왔었다. 이러한 기본 통념을 깬 것이 '우리꽃'에서 개량종으로 선보인 다양한 후록스 품종이다.

일반 화색이 다양하고 화기도 6월말부터 10월까지 연속개화하며 흰가무병에도 내병성이 있어 기존 후록

스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고급종으로 이제는 어떤 다른 품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군식, 혼식 등 어떤 곳에 적용해도 잘 어울리며 그 화려함은 그 어떤 소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감수목 품종도 다양화 되어 절화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도 있고 키가 작으며 봄에 꽃이 피는 품종까지 출시되어있다.

현장에서의 적용



1. 단독군식 도로변의 화단이나 또는 일반 정원에 군식하는 경우가 많다. 길이가 긴 도로변 같은 경우 여러 품종을 번갈아 식재하면 더욱더 좋다.
2. 혼합식재 혼합식재시 뒤쪽 식물로 반목해서 식재하면 좋은 안정맞춤의 소재이다. 봄에 앞쪽식물이 꽃을 피운 뒤 뒤쪽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3. 품종원 많은 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록스 한 품종군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색상과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식물원이나 화단에 품종원을 만들 때 이제는 필수적인 소재이다.



형태, 생태적 특성

대부분 다 자랐을 때 70~80cm 정도 되고 봄바람, 봄맞이 등 일부 품종은 20~50cm 정도 자란다.

절화용으로 사용되는 품종들은 거의 1m 이상 자라며 잎에 광택이 있다. 해가 지날수록 포기는 더욱 커지면서 큰 무리를 이룬다. 화색은 빨강, 분홍, 주황, 백색, 보라 등의 단일색과 복색 계통이 있다. 잎에 노란색, 흰색의 무늬가 있는 무늬종도 존재하는데 생육이 매우 약해 재배하기가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양지 및 나무아래 어느정도 빛이 많이



들어오는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생육은 전반적으로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데 특히 양분이 많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는 꽃도 크게 피고 화색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관리 및 재배방법

후록스는 종자가 맺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원래의 고유품종이 나오지 않고 잡종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삽목 및 분주를 통해서 번식한다.

재배

- 1.삽목 봄, 가을로 줄기 2마디 정도를 잘라서 보통 200구 트레이에 꽂는다. 약 1달정도의 육묘기간을 거쳐 뿌리들이 형성되면 포트에 옮겨진다. (사진 1 화이트민 삼목묘)
- 2.분주 후록스는 근삽이 되는 식물이므로 식물체를 캐서 분주할 때 땅속의 뿌리를 완전히 굴취하지 않고 삽을 토양에 비스듬히 넣어 뿌리의 일부가 찰리도록 한다. 토양속에 남겨진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와 자라게 된다. 가을에 굴취하거나 이른 봄에 하는 것이 좋다. (사진 2)



관리

후록스 개량종은 6월부터 10월까지 연속개화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꽃대 컷팅이라는 관리가 필요하다. 6월중하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1달후 꽃이 질 무렵 꽃대를 컷팅해주어야 약 2주후부터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꽃대 바로 아래를 컷팅해 주어야 한다. 너무 아래쪽을 컷팅하면 가을에 다시한번 꽃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자가 맺혀서 떨어지면 잡종이 나오기 때문에 11월에 꽃이 완전히 지고나면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컷팅을 해주어야 한다. (사진 3)



제6회

우리조경인상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제 6회를 맞았습니다.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량의 종자와 모종, 벽화수를 현장에 잘 적용하여 아름답고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 6회 조경인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에게는 중국의 조경현장, 식물원, 백두산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객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추천접수 8월 15일
심사 8월 20일
발표 개별통보후 우리넷 9:10월초 게재
시상 8월말~9월초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문의 : 031) 634-0326~8

나왔다! 축제용 4계절 혼합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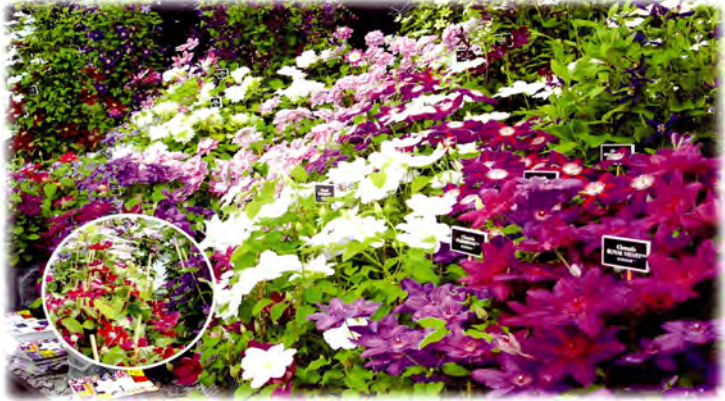
전천후 축제용 페스티벌혼합종시리즈

계절용 페스티벌 '스프링', '썸머', '스카이' 4가지 색상을 이용한 페스티벌 '화이트', '핑크', '레드', '블루' 키가 작은 페스티벌 '해성'

구입문의 : 031) 634-0326~8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50품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덩굴식물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클레마티스(Clematis)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230종 이상이 있고 대부분 5월경도에 개화가 시작되는데 일부 품종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기도 한다. 클레마티스의 꽃은 크기, 모양, 색에서 다양함을 보여준다.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표현하며 크기도 작은 꽃부터 큰 꽃까지 선택할 수 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주기적인 관수와 영양공급을 해주어야 생육이 좋다. 토양은 비옥하거나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

클레마티스는 기어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앞말은 지지대가 필요하다. 지지대는 펜스, 파고라, 아치, 트랜시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품종을 번갈아 혼식하여도 좋고 장미 등 타 덩굴식물과 어울려 심어도 좋다. 일부 품종은 지피식물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작게 꽃이 피며 밀도 높게 생장하는 클레마티스를 이용하면 지표면을 아름답고 특색있게 피복할 수 있다. 또한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인데 생장력이 왕성하지 않고 모양이 아담한 품종은 화분에 덩굴고리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다.

공급면에서 손쉽게 원하는 품종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현재 '우리꽃'에서는 50여종을 확보하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색, 꽃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



김영채
경희대학교 교수

세찬 장맛비 지나친 날 짙은 녹색 산야에 기분 좋은 바람결이 무더움을 잊게 한다.

큰 비바람 지겨운 초록 숲에 칠월 하순의 맑고 강한 햇볕 사이로 누출대는 일새들의 반짝임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산천에 펼쳐져 있는 평화로움, 거기에 나의 오후가 머무는 이것이 행복일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 곁에 서있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잊고 산천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혼잡한 뇌리에서 멀어져가는 시간을 앞에 펼쳐져 있는 녹색정원에 행복을 느낀다.

행복은 누구나 갖고 싶은 염원, 그 염원을 따라 즐기치게 마련은 현재의 우리들, 그러나 좀체 황홀한 충족의 행복은 멀기만 하다. 이처럼 우리는 충족이란 욕심에서 작은 행복까지 잃고 사는 무지에 익숙하다. 나 또한 그 무리 속에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우리가 일찍부터 저 성숙한 자연의 고매함을 알았다더라면 더 큰 행복은 아니더라도 행복의 작은 일새라도 잃지 않을 터인데 어찌 저 산야의 감사함에 부족하였을까?

좀체 자연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부족한 지혜에 탓할 바 없다. 자연이 베푸는 생명의 고귀함에 깨우침이 모자라 그리 하리라. 저처럼 싱그러운 사야를 바라보면 다만 평화로움 뿐 고매한 생명력을 잇는다.

풀과 나무는 생명이다. 그의 인고가 우리에게 무한의 생명력을 이어오게 하였다. 산천의 초록 생명은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준 식량이며, 우매한 인간을 깨우쳐 주는 정신적 산물의 지혜자이다.

숲 안에 들어 차 있는 나무들이, 들녘에 펼쳐져있는 풀잎들이 건전한 생명과 아름다운 생각들을 만들어주는지 감사해 하는 이 얼마나 될까?

산야에 수많은 풀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지 감사해 하는 마음 얼마나 클까함에 나의 작아지는 가슴에도 여러식음이 숨어든다.

금수강산이라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 그 산천을 수놓은 산야초들, 그 풀꽃이 만발한 이 땅의 산과들을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까. 계절마다 씩 씩 이어지는 화색의 길들과 그 향기들이 어찌 낙원이 아니라 하겠는가. 그것들의 이름이 있고 없고 간에 한낱 잡초인들 그렇게 알아 이름하여 산야초며, 야생화라 하지 않는가.

야생화! 그 누구의 손길이 아니어도 스스로의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강인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순수한 옛 향기에 더욱 매력적이 든다. 야생화는 고귀한 그 이름이 아니어도 더욱 친근한 사랑스러움이 배여가는 아름다움이다. 달빛아래 하얀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펼쳐 있던 길가의 잡초 밭 개량초 꽃들, 눈발 길 작은 개울 따라 밤하늘의 은하수 별 꽃처럼 되어있던 여피대, 고마리의 모습에 내 어찌 아름다움을 잊을 수 있었으며 그 행복함을 갖지 않을 수 있었는가.

우리주변에 있는 산야의 야생화, 새로운 생명의 자원으로 새로운 관상의 자원으로 건강의 자원으로 우리 곁에 점점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고, 그 미덕을 새롭게 계량하여 이 세상에 보급하고 나누어 주는 '우리꽃'에는 2만여 평의 대지에 화려한 우리 꽃을 펼쳐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 항상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우리꽃'의 노력은 1000여종의 새로운 우리 꽃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사업으로 우리들의 작은 행복을 키워주는 행복의 샘터이어서 참미롭다. 비 개인 주말 이후 그 행복의 상태를 찾아 가보리라. 🌸



특허 제 10-0807285호

도시미관의 새로운 가능성, 축제 홍보의 장

원시스템 녹화공법 **'벽화수'**

4천여평의 녹화수양도!

목재도!

완벽한 담장도, 화단도!

벽화수는 도로나리, 마을길, 주차도로의 난간, 보행자교의 난간, 전철의 벽체, 아파트 전원의 벽면이나 계단까지 도시의 어떠한 녹화공사에도 능숙하게 적용됩니다. 1년 성장도 완료, 2년 완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일정도로도 교체도 가능합니다.

자연에 밝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634-0328~8

제조

시공

이와영 Life

그라스
Grass

마음을 움직이는 멋스러운 경관연출

사초과와 화본과로 대표되는 그라스는 외국의 경우 조경용소재로 빠질 수 없는 주요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며 가을 단풍의 질감과 일반적인 식물에 없는 겨울에도 그 형태가 유지되므로 더욱 돋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우라꽃'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며 이제는 그라스류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앞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스류는 아름다움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라꽃'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그라스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골프장, 카리야드, 교통섬 등에 그라스원을 조성하여 오히려 이 있는 화단 보다도 더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질감하게 아름다운 꽃을 그라스와 혼성식재하면 그 조화를 배가시킬수 있다.

소리와 움직임 부드럽게 쓰다듬는 여름의 산들바람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 봄의 미풍과, 가을폭풍, 겨울바람에도 그라스의 나긋나긋한 줄기와 꽃들은 팔랑인다.

빛과 반투명 다른 어떤 가든 정물보다도 반짝이는 식물이다. 꽃과 잎은 빛을 많이 통과시켜서 태양에 의해 뒤나 옆에서 비추어질 때 아주 극적으로 보인다.

늦가을과 겨울의 낮은 각도의 햇빛은 이런 효과가 더욱 가속된다. 다른 전형적 가든 식물들이 감소 쇠퇴할 시기에 경관에 활기참을 가져온다.

선의 질 크기, 모양, 색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그라스는 강한 선형질감을 더해준다. 이 선들은 다양하다. 어떤 그라스의 잎들은 아주 꽃잎이 서 있으며, 어떤 것들은 부드럽게 휘고도 한다.

형태/질감/크기 그라스의 모양은 조밀하게 군생하는 마운드를 형성하거나, 깔끔하게 대칭적인 분수포양, 수직으로 곧게 서 있는 형태, 그리고 불규칙적인 폭포형태 등이 있다. 그라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바뀐다. 기부의 로제트형 잎들이 다양한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형태는 재배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는 변화한다. 햇빛을 가득 받는 곳에서 꽃잎이 서는 형태로 자라는 그라스들이 반그늘에 식재되면 느슨해지고 아치형으로 잎을 내린다. 그라스들이 모두 선형의 잎을 가진다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가는 잎부터 거칠고 두꺼운 잎까지 다양한 범위의 질감을 낸다. 크기 또한 다양하다. 30cm 높이부터 4.6m까지 거대하게 자라는 그라스도 있다.

잎과 꽃의 색깔 그라스의 잎과 꽃은 뚜렷한 색의 범위를 가진다. 봄과 여름의 잎 색은 어두운 숲의 초

록색부터 라임색까지, 또는 회녹색부터 청녹색까지 무수한 종류의 초록색을 내거나, 청색, 붉은색, 밝은 노란색등을 가진다. 무늬종 잎들은 크림색부터 아주 흰색까지 선택할 수있다. 황금색, 옐로우색 그리고 붉은색 등이 여름의 잎 스펙트럼이라면 가을은 반색에서 황갈색까지 멋진 겨울의 색조로 변화면서 색이 더욱 다양해진다.

꽃색은 잎의 색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흰색, 분홍색, 자주색, 옅어가는 구리색, 검은빛이 도는 갈색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색은 아침의 안개와 서리에 의해서 강화된다.

또한 많은 그라스의 꽃들은 보품보풀하며 풍성한데, 종자가 맺히고 마른 후에도 이 상태를 유지한다. 일출과 석양의 다양한 톤에 의해 반투명한 부분들이 물든다. (6)



- 일본 하나마코빅함화- 수크령품종과 대형무늬갈무리 다른 식물과 어울려 포인트로 식재된 화단
- 고양 덕양구 교통섬-기존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던 화단에 무늬갈무리, 메리디안, 탈수염물 등을 이용하여 그라스원을 조성
- 일산 서구 교통로- 전구간 속근초 혼합식재된 화단 중 그라스로 조성된 화단
- 그라스류와 꽃이 피는 속근초와 혼성식재 사례



벽면녹화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수직정원으로의 도약 '벽화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모색과 창의적인 도시 공간연출,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경문화 정착을 목표로 '2009 대한민국 조경박람회'가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렸다.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조경용 자재, 디자인, 설계, 시공 등 100여개의 업체가 출품했다.

'우리꽃'에서는 입면녹화자재 '벽화수'를 소개하고 신개념의 윈터치 화분 '시티가든'을 박람회에 선보였다.

그동안 우리꽃을 통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던 벽화수는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조경 인들에게 벽면녹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서울시에서는 벽면녹화 조성면적의 40%를 녹지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고, 특히 2009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때문에 우리꽃의 벽화수는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벽면녹화는 옥상녹화와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열섬 현상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이미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다. 관람객들은 꽃과 식물들로 둘러싸인 벽화수 부스 안에 들어와서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면에서 단지 꽃을 위주로 한 녹화 개념을 뛰어넘어 풀밭과 꽃색, 단풍이나 겨울의 상록 등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혼합의 디자인을 통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되어 보이며 연출 감상할 수 있는 경관을 보여주었다. 즉, 단순한 벽면녹화가 아닌 수직정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조경업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것이 벽화수 라면 일반 관람객의 인기를 누렸던 시티가든은 올해 우리꽃에서 새롭게 선보인 윈터치 화분이다. 나만의 작은 화단을 만들 수 있는 시티가든은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화분 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관을 가지고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도블록위, 계단, 교통섬 안전지대에도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한 화분으로서 신개념의 화단형 화분시스템인 것이다. 특히 축제, 행사

디스플레이용으로 안정맞춤인 새로운 조경자재로서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유기농 먹거리리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의 옥상에서 간편하고 쉽게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꽃의 장점은 모두가 식물전문가라는 사실이다. 우리꽃의 경쟁력인 다양한 품종으로 한 발 앞서 나가고 식물의 특성과 생육환경을 잘 이해하여 적지적소에 식물들을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진으로 밖에 소개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혼합식재, ARI가든, 우리꽃번 혼합종 역시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2009년, 인천교육청 옹벽, 동대문꽃밭, 부천 원미구 도로중앙분리대, 성북구 아파트 옹벽 등에 벽화수가 시공되어 벽면녹화를 뛰어넘는 수직정원으로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경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꽃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경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해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 편집자주 -

벽면녹화, 옥상녹화 시장을 겨냥하자 LEED가 제안하는 야생화 농장 산업의 성장



정부가 주관하는 또는 협력하거나 자금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환경인증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 또한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환경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산업과 상품 시장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사업기회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다른 산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만들어진다. LEED는 친환경 건축 인증에 관련된 기관이고, SSI는 친환경 건물의 조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기관으로 건물을 둘러싼 경관의 시공과 유지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결합으로, 친환경건축의 붐과 건물 내외의 그린경관사이의 틈이 메워진 것이다.

벽면녹화

벽면녹화는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외부벽 또한 내부벽을 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화는 공기를 정화하고, 소음을 막아주며, 심미감을 강화시킨다. 벽면녹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식물 소재의 선택 또한 달라진다.

옥상녹화

아스팔트, 돌과 시멘트등과 같은 예전 재료를 대체한 친환경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옥상녹화는 잠재된 조경공간을 대폭 늘려준다. 미적인 감상대상이 될 뿐 아니라, 환경적 재정적 이익을 남기고, 녹색공간을 창출한다. 다육식물을 이용한 옥상녹화는 화재 위험을 줄여 주고, 과도한 빗물을 흡수하며 폭풍에 의한 유실을 막아준다. 극도의 건조 조건이 옥상 녹화용 식물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경 공간을 창출한 뒤에는 유지관리가 필수이다. 이것은 비료관리, 토양 관리, 잡초 관리, 전정과 청소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하게 해준다. 조경을 의뢰한 고객들이 어떻게 정원을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관리를 하는지 아는 것, 위와 같이 발생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게 필요하다. 지자체나 많은 개인단체들이 이러한 녹색공간프로젝트들에 대한 사업과 자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조경사업이 더 넓은 그린산업의 분야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녹색의 거대한 움직임의 한부분에 자리잡았다는 만족감과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경경관이 바로 녹색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LEED란?

미국의 친환경건축물협의회(green building council)는 친환경 건물의 디자인, 건축, 운영 등에 대한 국가표준마련을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을 지도부로 두었다. LEED는 모든 건축물이 다음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장려한다.

1.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2. 물 절약
3. 에너지 효율
4. 자재선택
5. 실내환경기준

우리나라의 관련동향

건물 녹화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2008년 7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기관협력을 통해 건축물녹화(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등을 포함하는 일체녹화) 분야의 식물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해 '식물소재 산업화 및 건물 녹화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1천 세대 ·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엔 벽면녹화 의무화

2009년 7월 / 서울시가 이번엔 친환경 아파트 붐을 선도적으로 유도하고 나섰다.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을 분석한 결과 입면 및 경관 디자인 분야가 233건(30.3%)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아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내놓은 '공동주택심의기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13일 새로 내놓았다. 도로변 옹벽은 자연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단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어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 식막하고 차가운 화석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 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도 확립했다.

우리꽃 따라잡기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들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3 암석 식물 Rock plants

암석 식물은 넓은 범위의 내한성 식물로 산악지대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을 대표한다. 대부분 암석 식물은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생육이 알맞다. 단순한 모양으로 자연스런 매력을 가진다. 보통 예쁘고 앙증맞고 깨끗한 색상으로 풍성한 꽃을 피운다. 좁은 틈에서부터 화분, 넓은 암석정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정원에 잘 어울린다.

암석식물이란?

구근을 포함하여 매트나 쿠션 모양을 형성하는 다년생 속근초를 말하나 왜성으로 자라는 수목과 관목도 포함한다. 고산성 식물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암석 정원 식재에 알맞은 작은 크기의 식물일 수도 있다. 많은 고산성 식물들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적당한 사면의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종, 품종 등을 말한다.

생장특성

고산성 식물들은 수목 한계선 위 쪽에서 바위투성이 사면이나 바위의 균열 틈 등에서 자란다. 대부분 생장 습성상 뿌리를 깊게 내리며 뻗어나가며 밟고 눌려 자란다. 작은 잎은 가죽질이며 광택이 나거나 얇은 털들로 덮여있다. 이러한 적응 방식으로 고산성 식물들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며 뜨겁고 강한 태양이 내리쬐며 온도차가 극대화된 지역에서 살아남는다. 또한 빠르게 배수되는 거친 토양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이나 고도가 낮은 정원의 저울 추위에 약하며 습한 여름을 싫어한다.

조경 적용

Juniperus communis와 같이 작은 키의 침엽수를 식재하면 구조의 틀과 전체적인 높이감을 준다. Edelweiss나 Houseleek과 같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털이 나 있는 식물들은 정원에 특별한 질감을 주며 정원의 느낌을 살리는데 식물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암석식물들은 상록성인 경우가 많아 연중 정원을 즐길 수가 있다. 작은 관목으로 그 틈을 잡고 그 공간 안에 술이 달리고 반짝거리며 뻗어나가며 바닥에 깔린 작

은 식물을 식재하면 꽃이 만개한 것만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암석식물은 상대적으로 개화기가 짧은 편이지만 작은 깨끗한 색상의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난다. 가을이나 초봄에 꽃이 피는 구근을 이용한다면 정원의 개화기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암석 정원에서의 이용

이 식물군의 주요 매력 중의 하나는 원예가들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들의 작은 크기이다. 많은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지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석정원(넓은 스케일의 식재에서)에서 향기가 좋은 Daphne cneorum과 D. retusa 또는 버드나무류와 같은 작은 관목들을 더 자신의 구조적 프레임에 만드는데 사용한다.

Juiperus communis 'Compressa'와 같은 작은 소나무류도 수직적인 강조와 연중의 색깔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조는 sandwort/ Dianthus deltoideus처럼 매트와 쿠션 형식 식물과 함께 채울 때 쓰인다. 또한 타이탄 돌 형성하는 saxifrage나 로제트 형성은 세덤(Sedum) 그리고 광택나는 잎의 바위송(Sempervivum) 등을 쓰기도 한다.

일년내내 볼거리를 유지하기

상록성인 식물과 구조적인 식재가 라가든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고산성식물은 봄과 이른 여름 사이에 대부분 개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 봄에 피는 구근류(alpine narcissus나 crocus)와 그 후 개화하는 hdlanthemum, phlox 또는 veronicas, 그리고, 가을에 개화하는 Persicaria vacciniifolia와 cyclamen 등을 이용하여 시즌을 나르는 방법을 쓴다.

우리꽃이 개발한 암석정원인 ARI 정원에서 이용되는 무늬석재, 역세 그랜라이트, 에버골드 등 그라스류와 연숙 개화하는 노랑속근코스모스, 상록잔디대왕이, 스텔라원추리 등 품종을 적용하면 보다 더 경관 감

상 제점을 확대할 수 있다.

암석 정원에서의 이용

토양과 돌의 선택은 암석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암석은 그늘과 미네랄을 제공해주고 배수를 개선시켜주며 뿌리생장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암석은 보통 토양 아래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의 경우 이러한 암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모래와 자갈 토양으로 배수가 너무 빠를 경우 스폰 지처럼 물을 잡아두는 피트모스와 같은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토양의 배수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무껍질과 같은 유기물질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는 스폰지과 같은 역할 뿐 아니라 진흙 또는 진흙질 양토와 같이 무거운 토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Scree

스크리는 암석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모사한 암석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생긴 암석토양이다.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만든 정원과 화단은 배수가 뛰어나고 수분은 적당하며 뿌리 생장에 제한이 없어 암석식물의 식재에 적합하다. 평평한 지역보다는 큰 암석과 바위가 있는 사면에 있는 지역이 이 정원에 보다 적합하다. 사면의 방향은 상관없으나 북향과 동향의 사면이 보다 여러 종을 다양하게 기를 수 있다.

자생지에서는 식물 생장에 필수불가결한 수분원이 암석토양 아래에 자리잡고 있으며 보통 빙하에 의해 자갈, 암석 등의 퇴적물이 쌓여 생성된 지층 아래로 흐르는 이러한 수분층을 모레인(Moraine)이라 부른다. 정원에서는 수분층은 토양층 아래 30cm 정도에 위치해야 하며 지하에 배수장을 조립할 수 있는 파이프를 묻어서 해결한다.

